

# 불가리아 민족복식의 고찰

## - 여성복을 중심으로 -

나수임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A Study on Bulgarian Folk Costume

### - Focusing on Woman's Costume -

Soo-Im Rha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2008. 12. 17. 접수; 2009. 1. 15. 수정; 2009. 1. 21. 채택)

### Abstract

Through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n costumes in Bulgarian regions, the main factors for the formation of Bulgarian folk costume and its kinds and history have been found out so far as follows.

Although varying according to the district and climate, Bulgarian folk costumes have some general features determined by the material, the pattern, the application.

For women, Bulgarian costume consists of a white shirt, a single or double apron unique depending on each region(Bruchnick), a basic dress called a tunic (Soukman), and an open-tunic typed coat (saya).

The main factors for the formation of Bulgarian folk costume have been under the influence of natur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and historical streams resulting from its geographical location. Bulgaria is agriculture-oriented society based on a continental climate. Accordingly, as for the classification of costumes, body-fit clothes, such as shirts and jackets which developed in Europe and fit the body shape, have featured in Bulgaria. Besides, Bulgaria was under the rule of Turk for a long time at the end of the Middle Age. Having been influenced a lot those days, its folk costume shows Turkish elements now. With geographical features, it was found that the southern area was influenced most by Turkey and Greece, and the types of folk costumes in Europe developed mainly from the northern area.

The adaptation of traditional costume forms to the new cultural and progressive principles of appeal nowadays needs knowledge, as well as feeling. Finding the right measure and proportions of using old ethnic elements in contemporary clothing is the prerequisite of successful design.

**Key Words:** Folk costume(민속의상), Soukman(스크만), Bruchnick(브루치닉), Saya(샤야)

---

Corresponding author ; Soo-Im Rha

Tel. +82-41-550-5203, Fax. +82-41-550-5206

E-mail : sina@smu.ac.kr

## I. 서론

복식이라는 문화는 인류의 본질적이며 공통되는 현상으로 이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닌 인간,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서구식 의복이 현재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는 하나 현대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민족복식이 최초로 유래된 고대의 전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복의 기본적인 양식들은 인간의 기술적인 발전과 물리적 환경 및 그들의 전반적 생활방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본적인 양식의 소멸은 단순히 유행이 지났다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므로 복식의 양식은 사회변화라는 동일한 힘의 지배를 받는 근본적인 생활양식과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sup>1)</sup> 그러므로 이러한 민족복식에 대한 연구는 근접지역의 문화현상과 관련하여 횡적으로는 거대한 사회문화 속에서, 종적으로는 장대한 시대흐름의 측면에서 각각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sup>

많은 선행연구에서 민족복식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杉本正年<sup>3)</sup>은 민족을 인종적, 지역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가진, 동일한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 종교를 공유한 사회적 공동체로 보아 민족복에 대해서 “민족복은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회공동체의 대부분이 전통문화재로서 지금까지 신체에 착용한, 또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는 복장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역시 小川安朗<sup>4)</sup>도 민족복식은 언어, 종교, 역사, 풍습을 공유한 일정지역에 국가집단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유한 복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위에서 정의를 내린 민족복은 동일하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종, 종족의 의미보다는 이를 초월한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한 사회공동체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임영미, 황춘섭 등<sup>5)</sup>은 민족의상을 인종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족의상은 「Folk costume」 혹은 「Peasant Costume」이라 하여 주로 歐美학자들은 원시시대부터 현대 문명으로 발전하는 途 1:에 잔존하는 원시적, 혹은 고유문화의 일종으로, 미국에서는 지역, 종족, 직업, 종파, 그룹 따위의 전통적인 고유의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Peter Michelsen은 “전통적인 의복습관에 변화가 있기 이전 즉 도시와 시골, 상류층과 하류층과의 차이가 없어진 19세기 이전의 시골사람 복장”으로 Richard Weiss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 생활에 관련되어 착용되는 모두”를 또, 제임스 스노우던<sup>6)</sup>은 “농촌사회의 의상이나 유럽도회지에서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어느 정도 유행을 따르지 않는 의복”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민족복과 민족복은 그 개념의 차이가 확실하나 여러 문헌에서 학자들은 이를 구분치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민족복식은 지리별, 국가별 대집단으로 구분되며 특정지역내의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특수 소지역의 복식문화를 민족복식으로 칭하며 따라서 민족복식이 민족복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방의 민족복이 그 민족전체의 민족복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전근대적인 전통복을 포괄적으로 민족의상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대 이후의 시민의식의 대두와 의복산업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유행복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서 민족복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고 또한 민족복식과의 개념구분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복식을 일정 지역 내에서 언어, 종교 및 생산수단 등의 동일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이를 기초로 한 근대이후의 국가적 통일체 형성의 경향이 현저한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입혀지는 복식으로 이를 국민복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한다.<sup>7)</sup> 이와 같이 전통적인 민족복식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질과 양이 함께 변모하여, 선진국에서는 축제복이나 관광복, 또는 종교적 의례복이나 박물관 진열품 등으로 변용되는 추세이다. 기후·풍토·인종과 같은 자연적 조건과 종교·언어·예술 같은 문화적 조건이 다른 민족문화의 직접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는 민족의상은 역사와 더불어 교류와 변용을 계속하면서도 특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역적 특성을 지닌 전통 복식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현대의 직물과 의상에

대한 영감으로 오늘날에도 사용된다. 각 지역의 민속의상에 대한 미적 감각을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면 불가리아 민속 의상과 세계 패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디자이너 만나 수이, 후세인 살라얀, 불가리등과 같이 현대 패션의 디자인에 창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불가리아 민족복식의 형성요인을 살펴보고 불가리아의 민족복식에서 여성의 복식을 중심으로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문헌적 고찰과 현지 조사 자료를 통하여 불가리아 여성의 민족의복과 장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복식의 연구에서도 자료가 부족한 동유럽 문화권의 민족복식을 소개함으로써 21세기의 패션트렌드에서 끊임없이 부각되는 에스닉패션 자료의 활용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II. 불가리아 민족복식의 형성배경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민족복식은 생활양식의 표현으로서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민족복식에는 전세기를 통하여 그들이 처한 기후, 지형 등의 지리적 자연환경과 경제의 발달단계, 종교적 신념, 정치 등에 의한 사회 문화 환경의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되어 왔다.<sup>8)</sup> 따라서 민족복식은 인간의 역사인 복식사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그에 관한 연구는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역사 및 지리, 의생활의 교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리아의 환경<sup>9)</sup>을 살펴보면 불가리아의 민족복식요소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지리적인 성향과 문화적 특성에 의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크게 나뉘며 동유럽은 슬라브인이 중심이 되어 발달을 하였다.<sup>10)</sup> 서양이 거의 공통적인 옷 모양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4, 5세기경부터인데, 그 후 비잔틴의 발전과 이슬람 문화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 2대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슬라브계의 동유럽 문화권으로서 헝가리·체코·슬로바

키아·루마니아 북부·폴란드·우크라이나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남유럽 문화권으로서 시칠리아·사르데냐·알제리·모로코·에스파냐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같은 동유럽권에서도 유고슬라비아·알바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 남부, 그 밖에 남유럽권에 속하는 그리스 등은 중세기 말 이후 오랫동안 투르크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민속의상에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sup>11)</sup>

현재 불가리아의 정식명칭은 불가리아 공화국(Republic of Bulgaria)이다. 지형적 위치로는 동부 유럽 발칸반도의 남동부에 있는 나라로서 북쪽은 도나우강을 국경으로 루마니아와 접하고, 동쪽은 흑해, 남쪽은 터키와 그리스, 서쪽은 세르비아·마케도니아와 국경을 접한다.

불가리아 지역의 선주민은 주로 트라키아인이었고, BC 15년부터 로마의 영역에 속하여 지배를 받았다. AD 6-7세기경 북쪽에서 이주하여 온 슬라브인이 발칸반도 전체를 점유했으나, 7세기 후반에 들어와 불가강 유역의 거주민 투르크족 불가리아인이 발칸반도로 진출하여 불가리아와 슬라브 두 민족의 혼합국가인 제1불가리아제국(681-1018)이 탄생하였다. 불가리아 제국은 비잔티움제국(帝國)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마찰을 빚었으나, 양국 간에 문화 교류도 이루어져 865년 보리스 1세 때는 비잔티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투르크 타타르계의 주민과 원주민인 슬라브인의 혼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1018-1185년 동안에는 비잔티움제국에 정복되었으나 1185년 북부 도시 투르노보를 중심으로 한 봉기에서 승리하여 제2불가리아제국(1186-1396)을 성립시켰다. 봉건체제의 붕괴는 실현되었지만 남쪽 터키에서 발흥한 오스만투르크족에 굴복, 1393년부터는 투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가 이때부터 500년간의 암흑시대가 시작되어 불가리아의 독립이 지연되었으며 1878년 러시아·투르크 전쟁 결과 자치공국이 되었고 1908년 불가리아 왕국으로 독립하였고 1989년 동유럽 민주화의 영향으로 공산정권이 붕괴된 후 1991년 신헌법을 채택하여 불가리아 공화국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불가리아의 주민은 슬라브 계통의 불가리아인이 2001년 현재 전

체 인구의 약 83.9%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인은 언어와 민족이 똑같은 단일민족이며 그 밖의 민족 중에서는 터키인이 9.4%로 가장 많고 집시족이 4.7%를 차지한다. 그 외 마케도니아인, 아르메니아인, 타타르인 등이 2%이다. 종교는 2001년 현재 대다수인 82.6%가 불가리아정교(正敎)이고, 이슬람교 12.2%, 가톨릭·프로테스탄트 1.2%, 기타 4%(2001)이다. 공용어는 슬라브어 중 남슬라브어계에 속하는 불가리아어이며 키릴문자를 사용하며 러시아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터키어도 사용한다.

불가리아의 자연환경은 디나르 알프스산맥과 연결된 발칸산맥(스타라플라니나산맥)이 국토 중앙부에 서에서 동으로 뻗어 있어 국토를 남과 북의 두 개의 유역 분지로 나눈다. 루마니아와 공유하는 북쪽 분지는 사면이 도나우 강변의 저지(低地)를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남쪽 분지는 발칸산맥과 평행하게 달리면서 그보다 작고 낮은 스투드나고라산맥, 수르네나고라산맥이 로도페산맥과 함께 급사면을 이룬다. 이들 산맥은 삼림이 풍부하다. 남쪽 분지에 전개되는 북(北)트라키아 평야는 풍요한 농업지대로서 로도페·피린·릴라의 세 산맥이 서남 방향에서 둘러싸고 있다. 삼림으로 덮인 릴라산맥의 무살라산(2,925m)은 발칸반도의 최고봉이다. 북쪽 분지의 사면을 따라 흐르는 이스쿠르강(江)과 안드라강은 짧지만 도나우강과 합쳐져 흑해로 흘러가고, 남쪽분지에 흐르는 마리차강과 툰자강, 아르다강은 완만하게 곡류하면서 한 곳에서 모여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해(海)로 유입된다. 기후는 바다가 가까운데도 대륙성기후이며 사계절이 있어 지형적으로 불가리아는 비옥한 곡창지대였다.

또한 동유럽은 지리적으로 서부 유럽, 서남아시아, 러시아 연방 등과 영향을 받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 부터 자주 침입을 받아왔다. 5세기경에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았고, 15-17세기에는 오스만투르크의 침략을 받는 등 주변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국경선의 변화가 심했으며, 인구이동도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선이 조정되면서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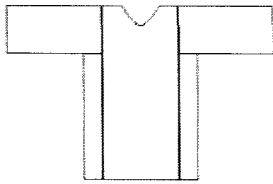
비아·알바니아 등 7개국이 공산화되었다.

이처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지역적, 역사적인 친근성 때문에 감정이나 정서를 비롯하여 종교, 미술, 건축, 음악 등은 물론 모든 생활문화 전반이 서로 뒤얽혀 복잡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유럽 미술계의 역사적 계보를 크게 나눠 보면, 동방 정교권(正敎圈)에 속하면서 비잔틴미술의 맥을 이어 온 일파와, 로마 가톨릭권(圈)에 속하면서 미술 면에서도 전통적 서유럽 중세미술의 발달과정과 맥을 거의 같이하는 유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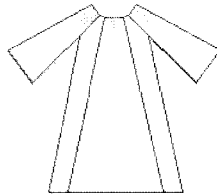
그리스정교를 받아들인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지에서는 비잔틴미술의 전통과 각 지방의 전통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미를 갖춘 교회당들과 그 내 외부 벽화들의 지명도가 높다. 7~9세기 불가리아 건축의 특징은 바실리카 양식이며, 센트럴 양식은 흔하지 않으나 9~11세기에는 이 양식을 모두 볼 수 있다. 12~14세기 건축은 비잔틴의 영향을 받았으며 회화(繪畵)도 마찬가지로 비잔틴 영향을 받았다. 불가리아의 민속공예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자수와 목각이 유명하다. 이러한 민속공예는 불가리아 민족복식의 특징으로 남성, 여성복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5세기 후기, 오스만투르크 치하에서는 이슬람미술이 혼입하기 시작하여 동방 정교의 영향은 점점 쇠퇴하여 갔고, 합스부르크가(家)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바로크 양식이 확산되어 갔다. 동유럽에서의 내셔널리즘은 18세기 후반 불가리아에서 일어났으며, Z.조그라프에 의해 비로소 회화가 종교적 색채를 탈피, 세속적인 주제 위주로 바뀌어져 갔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불가리아의 민족복식은 반 터키운동이 고조되었던 19세기경에 크게 발전하였다. 음악, 춤, 의상들은 이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자수의 디자인이나 직조방법, 민속예술이나 공예 등은 슬라브족의 영향을 받았다.<sup>12)</sup>

비록 구역과 기후에 따라 다양하지만 불가리아 민속 의상은 소재, 패턴 그리고 응용에 의해 결정된 일반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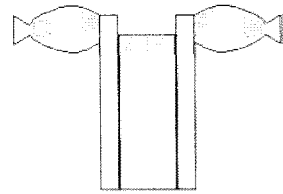


<그림 1> 직선형재단의 셔츠: risa, koshulya



<그림 2> 주름 들어간 슬라브풍의 셔츠: burchanka

출처: <http://www.eliznik.org.uk>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 III. 불가리아 여성의 민족복식

불가리아의 여성 의상은 셔츠 위에 옷을 입는 패턴과 유형에 따라 앞치마(Bruchnick) 1개가 있는 것, 2개 있는 것, 슬리브리스 클로즈드 튜닉(soukman), 앞이 트인 코트인 오픈튜닉(saya) 등의 4가지 기본 유형의 여성스러운 민족복이 존재한다.<sup>13)</sup> 이 기본 의상들은 북부, 남부, 서부 등 지역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다.

#### 1. 의복

##### 1) 셔츠(Chemise)

여성복의 셔츠는 슈미즈의 형태로 risa 혹은 koshulya라는 직선형재단의 형태와 <그림 1> burchanka 라고 하는 목부분에 주름 잡힌 형태의 슬라브풍의 긴 소매 <그림 2>와 하이 네크라인의 흰색 셔츠가 옷의 기본 요소로 활용되었다.<sup>14)</sup> <그림3>은 특히 burchanka는 더블 에이프론과 함께 입혀졌다.

risa 혹은 koshulya라는 직선형재단 형태의 셔츠는 Yantra강의 동쪽인 불가리아의 북동부지역에서 더블 에이프론과 함께 입혀진다. 이 셔츠는 앞부분의 아래에 슬릿이 있고 머리 부분이 구멍이 있는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다. 손목부분이 절개되어 오픈된 넓은 소매에 검은색, 갈색, 곤색 등의 어두운 색상으로 자수로 장식된다.

burchanka는 주로 불가리아 북서부지역과 중북부지역에서 입혀졌으며 초창기에는 린넨이나 헴프 19세기 이후에는 면, 실크로도 만들어졌다. 소매는 주름이 잡히면서 목부분에 달린다.

셔츠는 민속 의상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풍부

하게 수가 놓아지고 레이스로 장식되었으며 얇은 조직의 면, 헴프(hump) 혹은 린넨과 실크의 혼방직물로 만들어졌다. 불가리아인들은 누에고치 기르는 기술이 발전하여 견섬유를 어떻게 얻는지 알았고 아름다운 실크를 사용하였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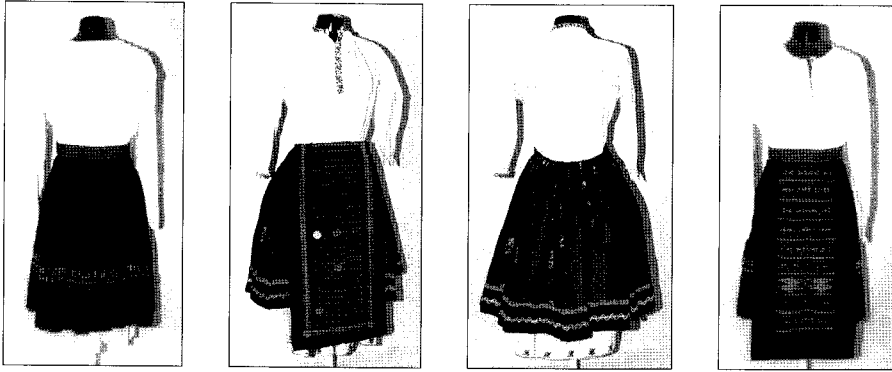
<그림 3> 불가리아여성의 셔츠

출처: <http://www.eliznik.org.uk/Bulgaria/photos/Costume>.

##### 2) 에이프론 (Bruchnick)

불가리아 여성복의 스타일은 셔츠위에 입는 에이프론이나 튜닉의 형태로 결정된다. 에이프론은 한 개 혹은 두 개의 에이프론으로 한 조각의 천으로 된 허리를 묶는 형태나 허리부분에 플리츠나 게더가 잡힌 두 개의 천으로 된 더블 에이프론으로 구별된다. 둘째, 수크만은 소매가 없거나 짧은 소매가 달려 어깨가 고정된 튜닉 셋째, 사야는 앞트임이 있고 소매가 긴코트형으로 짧은 소매가 달려거나 소매가 없는 것도 있다.

먼저 셔츠위에 입혀진 에이프론은 대부분이 허리에 좁은 벨트를 묶고 1-2개의 에이프론으로 구성된다. 이는 불가리아 여성 민속복의 중요한 장식적 요소로 브루치닉(Bruchnik)이라 불리는데 지역마다 그 색상과 장식으로 고유한 타입의 에



<그림 4> 북부지방의 슬라브풍의 흰 셔츠와 화려한 더블 에이프런인 브루치닉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출처: <http://www.eliznik.org.uk>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이프론이 있다.

북부의 의상은 더블 에이프런형인 브루치닉으로 대표되는데, 슬라브풍의 긴 소매와 하이네크라인의 흰색 긴 셔츠를 기본으로 입는다(그림 4).

이 셔츠위에 무릎길이의 스커트인 기본 에이프런과 앞에만 있는 작은 에이프런을 착용하는데, 스커트의 형태는 앞쪽 아래로 트여 있고 몸에 꼭 맞으며 허리에 묶는 형태이다. 그 위에 입는 또 하나의 에이프런은 그 벌어짐을 감추기 위해 스커트 위에 입는다. 주름을 잡은 스커트인 에이프런은 붉은색, 검은색, 주황색의 세로 줄무늬인 반면 이보다 작은 에이프런은 수평 줄무늬를 넣어 직조한다. 에이프런의 뒷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에이프런의 하단을 여러 가지 색상의 줄무늬로 장식한 것(Measal),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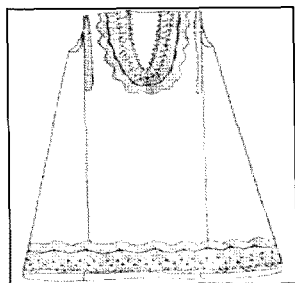
채꼴의 가는 플리츠에 줄무늬와 다이아몬드문양(Vulneick), 모직물이 주소재인(Peshtemal) 것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 3) 클로즈드 튜닉(Souk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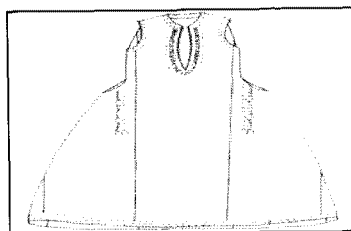
불가리아의 여성복은 셔츠위에 입는 튜닉이나 에이프런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것은 주로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불가리아 전역에서 입는 앞이 막힌(closed tunic) 튜닉이자 터어키 스타일의 여성용 겹옷인 스크만은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많이 입었는데 짧은 소매, 긴 소매인 것도 있지만 소매가 없는 것이 더 인기 있으며, V자나 U자형의 네크라인이다. 네크라인, 소매, 밑단 등의 가장자리에 다양한 색상의 끈, 구슬, 틴셀 등으로 장식하며 겨울에는 검은



<그림 5> 중부 지방의 스크만  
출처: <http://www.eliznik.org.uk>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그림 6> vissoklinest 스크만



<그림 7> kussoklinest 스크만

색, 푸른색 또는 붉은색의 한 장의 펠트된 모로 만들며 여름에는 밝은색이나 흰색의 면, 마, 헴프를 이용한다. 중부지방의 스크만은(그림 5) 헐렁하고 긴 흰색 셔츠인 riza 위에 입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장식하거나 수를 놓으며, 허리에는 정교한 은 버클이 있는 장식용 가죽 벨트를 맨다. 짧은 에이프런을 종종 스크만과 함께 착용하고, 짧거나 긴 소매의 재킷도 함께 착용한다. 천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vissoklinest 스크만은(그림 6) 장방형이나 사다리꼴의 큰 천으로 만들며 kussoklinest 스크만은(그림 7) 짧은 천을 허리선 밑으로 낮게 연결하여 다채로운 색상의 자수로 목둘레선을 장식하고 반소매인 경우 소매 끝에도 자수를 한다.

서부의 스크만은 주로 무릎길이고, 남동부와 중앙부에서는 거의 발목까지 오며 가장자리에 킬러풀하고 고급스러운 아플리케 장식을 하는데, 남동부는 장식 폭이 아주 넓고, 중부는 비교적 좁은 편이다.

#### 4) 코트 혹은 오픈 튜닉 (Saya)

사야는 넥라인이 많이 파이고 무릎 혹은 종아리 길이로 길거나 짧은 소매가 달려 있으며 소매가 없는 것도 있고 앞부분이 트인 코트 형태이다. 기본이 되는 흰색의 koshulya 라는 직선형의 셔츠 위에 입는 일종의 코트이자 겹옷으로 오픈튜닉(open tunic) 형태인 터키스타일의 여성용 상의로 되어 있다. 주로 남부, 남서부에서 입혀졌으며 사야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검은색이나 푸른색의 단일색상이나 줄무늬의 모직, 린넨, 면직물로 만들어졌으며 나이 많은 여성은 더 어두운 색의 면을 입지만 여름에는 밝은 줄

무늬의 면으로 내치된다. 모직 사야의 목 부분과 소매 그리고 단은 종종 자수나 아플리케, 레이스, 섬세한 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러한 사야스타일은 터어키나 그리이스 일부지방에서도 입혀진다.<sup>16)</sup>



<그림 8> 남부지방의 오픈튜닉, 코트(사야)  
출처: <http://www.eliznik.org.uk>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커다란 1-2개의 에이프런으로 스커트 중앙의 앞트임을 가리고 넓은 허리 밴드나 벨트를 맨다. 남부에서는 체크무늬 에이프런이 발견되는데, 색상은 나이나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든 여성은 어두운 색상을 선택한다.

#### 5) 머리장식

불가리아 여성의 머리장식은 전통적으로 미혼인 여성의 경우 어린 소녀들은 단순하게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거나 머릿수건을 쓰며 반면에 모든 불가리아 민족복식의 스타일에서 기혼여성에게 가장 보편적인 머리장식은 결혼 후에 머



<그림 9> 여성들의 머리장식  
출처: <http://www.eliznik.org.uk>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리를 감추는 스타일이다. 결혼한 여성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덮는 스카프를 쓴다. 이러한 스카프는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 삼각형, 반원형으로 한 개를 쓰거나 작은 모자위에 덮어쓰기도 한다. 무늬가 있는 긴 머릿수건을 삼각형으로 접어서 끝을 머리 뒤에서 묶는데, 이것은 전 시대의 흰색 스카프 대용이다. 이러한 머리 장식은 한편으로는 처녀성의 상실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혼 여성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 꽃, 주화, 구슬로 장식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 2. 장식기법

의상의 장식은 가족과 부족의 전통과 도덕적 원칙들을 반영한다. 불가리아 민족복의 장식기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불가리아의 민족복에 표현된 자수의 예술은 서로 다른 기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불가리아에서 가장 잘 발전된 예



<그림 10> 다양한 기법의 자수  
출처: <http://www.eliznik.org.uk>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술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면이나 견으로 만들어진 풍부한 자수의 드레스와 블라우스는 불가리아의 특산품이 되었다.

또한 민속의상 장식에 중요한 장식 끈은 가느다란 끈과 책 끈의 형태로 여성과 남성의 셔츠, 앞치마, 벨트, 슬리브리스 드레스, 사야 그리고 플리츠 백 에이프런(brachnik)에 항상 등장했다. 이러한 장식 끈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한 리듬과 이색적인 하모니는 의상의 아름다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공의 가느다란 끈은 다양한 타입의 의상에 마감 처리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장식기술은 패치워크로 동부 불가리아에서 주로 사용된다. 다양한 색상과 옷의 줄무늬나 작은 조각들은 다채로운 색상과 구조적인 조합을 형성하며 함께 어울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핸드 니트 역시 여성들의 의상 중 일부를 장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나의 고리에 짜여진 흰색 면 레이스는 여러 가지 색상의 자수와 함께 구성되어, 술, 앞치마, 슬리브리스 드레스에 어울린다.

위와 같은 불가리아 민속 의상에 사용된 장식 상징물들은 자연에서 유도되었다. 그 장식물은 악마와 악마의 눈, 질병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건강과 다산을 유도하기 위한 영원을 의미한다. 의상의 장식은 소매, 셔츠의 가시적인 부분, 가슴 위 등에 위치하여 액센트를 주며 그 자체로는 보여지는 곳에 위치하여 매우 이성적으로 보인다. 셔츠의 밴드, 목둘레주변, 뒤요크, 밀단, 소매 끝을 따라서 큰 식물, 기하학적인 디자인, 동물 문양 등이 보인다.

겉옷에서 장식은 일반적으로 패턴의 라인을 따르며 술기를 강조하고 인체의 성형 구조를 따



른다. 이와 같이 최근까지 민속 의상이 보존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가내 수공예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인데, 가정에서 직접 직조하고 염색함으로써 의상의 종류와 장식이 더욱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었다.

불가리아 민족복에서 보석은 민속의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의상을 축제와 같고 엄숙하게 한다. 버클(pafti), 벨트, 고리, 팔찌, 매달려 있는 금색이나 은색 주화(pendari)는 불가리아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 어떤 보석들은 무겁고 비싸며 선 세공과 에나멜로 만들어지며 유리구슬에 의해 보석이나 모진주, 혹은 에나멜이 점토로 대체되는 저질의 다양하고 값싼 금속과 스톤으로 이루어진다. 보석들은 장식일 뿐 아니라 소유자의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은팔찌나 목걸이, 귀걸이, 주화는 축제 때 사용한다.



<그림 11> 여성의 장신구들  
출처: <http://www.eliznik.org.uk>

손으로 짠 줄무늬가 있거나 자수가 놓여 있고 풍부하게 장식된 양말과 장갑은 매우 독특하다. 이처럼 화려한 색상으로 짠 양말, 또한 스타킹은 주로 검은색이나 흰색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흰색으로 발칸풍의 가죽 샌들과 함께 신는다. 과거에는 특별한 날에 윗부분에 수가 놓인 두꺼운 펠트 슬리퍼를 신었는데, 지금은 가죽 샌들을 신는다.

#### IV. 결론

지금까지 불가리아지역의 복식을 통하여 살펴본 불가리아 민족복식의 형성요인과 민족복

식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리아의 민족복식의 여성복은 다양한 디자인의 흰색 셔츠, 지역마다 그 색상과 장식으로 고유한 타입의 앞치마인 브루치닉은 싱글 혹은 더블 에이프론, 또한 오픈 원피스의 튜닉인 스크만이 있다. 이 스크만은 터키스타일로 지역에 따라 길이가 다르며 가장자리에 다양한 색상의 고급스런 아플리케 장식을 한 형태이며 지역에 따라 앞이 트인 오픈튜닉형의 겉옷인 코트라 할 수 있는 사야를 입는다.

둘째, 불가리아의 민족복식의 형성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역사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불가리아는 대륙성기후로 농업중심의 사회이다. 따라서 고찰된 남, 여복식의 형태는 복식의 유형분류에서 유럽지역에서 발달한 셔츠, 재킷 등의 인체의 형에 맞춘 튜닉형의 체형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불가리아는 중세말 이후 오랫동안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속의상에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아 불가리아의 민족복식에 터키적 요소가 엿보인다. 즉 여성복의 스크만, 머리장식, 화려한 자수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 슬라브 문화권에 공통된 상의와 자수, 이슬람 문화권에 공통된 머리장식 등이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남부 지역은, 터키, 그리스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의 민족복의 유형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민족복식은 각각 독특하게 발전되어 왔다. 민족복식과 같은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은 현대의 직물과 의상에 대한 영감으로 현대패션에도 응용되어야 한다. 민족지학적 전통의 보존은 현대 패션의 관점을 통해 숙련된 스타일링과 적응을 의미하며 문화적 전통의상의 현대적 해석은 감성뿐 아니라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민족복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필요하다. 현대 의상에서 오래된 민족적 요소를 사용하는 적절한 정도와 비율을 찾는 것은 성공적인 디자인에 있어 선결요건이다.

## 참 고 문 헌

- 1) M.J.Horn & L.M.,Gure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p.62.
- 2) 小川安郎 (1979). *民族服飾の體系* 衣生活研究會. p.13.
- 3) 杉本正年 外 2人 (1982). *東西の服裝史* 衣生活研究會, p.177.
- 4) 小川安郎 (1979). Op. cit., pp.28-29.
- 5) 황춘섭 (1992). *민속의상* 서울: 수학사, pp.10-12.
- 6) 제임스 스노우던저, 유태순역 (1992). *유럽의 민속의상* 서울: 경춘사.
- 7) 나수임 (1995). 동남아시아 민족복식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3, p.183.
- 8) Natalia Kalashnikova & Galina Pluzhnikova (1990). *National Costumes of the Soviet Peoples*. Moscow: Planeta Publishers, p.5.
- 9)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10) 이정희 (1988). *동유럽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183-185.
- 11) 의상디자인연구회 (1992). *세계민속의상과 패션* 서울: 학문사, p.141.
- 12) 유태순, 조기여, 김영란, 정윤희, 황윤정, 조은영, 김현희 공저 (2006). *세계민속의상의 이해* 서울: 신정6. p.157.
- 13) Ibid., pp.157-160.
- 14) Yordanka Chernaeva (2008). Tradition hasn't died out. *2008 Korea-Bulgaria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한국의상디자인학회*, pp.3-7.
- 15) Bulgaria, Traditional Costume. 자료검색일. 2008. 7. 20. 자료출처 <http://www.eliznik.org.uk>
- 16) Yordanka Chernaeva (2008). Op. cit., p.3.